

『擇里志』 이본 종합DB 사업의 성과와 학술적 활용방안

安大會 · 林映吉 · 金世鎬*

- | | |
|-------------------|-----------------|
| I. 머리말 | IV.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 II. 사업의 개요 | V. 맺음말 |
| III. 연구 결과의 주요 사례 | |

• 국문초록

『擇里志』는 조선 후기 李重煥(1690~1756)이 저술한 한국의 대표적 지리서이다. 「八道論」과 「卜居論」을 큰 틀로 삼아 팔도의 살기 좋은 지역과 산수가 빼어난 곳 등을 기록하였다. 『택리지』는 세상에 나온 직후부터 독자들의 주목을 받아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200종을 상회하는 이본의 수량이 『택리지』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인기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수많은 이본 가운데는 시기별 · 지역별 · 당파별로 필사자가 자의적 개작을 시도한 경우가 다수 포착된다. 그중 기존의 정보화 작업으로 수렴할 수 없는 유의미한 기록을 담고 있는 이본, 독창적인 편목과 구성으로 재편한 이본 등 30종을 선별하여 DB로 구축하는 사업을 수행하였다.

『택리지』 이본 종합DB' 과제를 진행한 결과, 정본에 실리지 않은 중요한 정보가 여러 이본에 산견될 뿐만 아니라, 방대한 이본 중에서도 내용 및 형식상에 몇몇 특정한 경향성이 발견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그 특징적 사례를 네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일례로 「팔도론」의 '전라도' 조에서는 지역을 대표하는 인물이 이본마다 추가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평양의 연광정('평안도' 조)이나 양근의 미원촌('경기도' 조)

* 성균관대 한문학과 교수, 제1저자 · 단국대 한문교육연구소 전임연구원, 교신저자 · 경상국립대 한문학과 조교수, 공동저자

등과 같이 특정 장소에 얽힌 유래를 더욱 풍성하게 보충한 경우도 발견된다. 또한 지원본 『택리지』의 ‘황해도’ 조와 같이 특정 지역을 바라보는 이중환의 시각과 상반된 평가를 내린 경우도 보인다. 한편, 『동국산수록』 계통의 이본군에서는 편목 및 구성을 과감하게 개편하여 전혀 다른 형태의 『택리지』로 변모한 양상도 확인할 수 있다.

‘『택리지』 이본 종합DB’ 연구 성과는 향후 고전 텍스트 DB화 사업에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평가한다. 첫째, 『택리지』 이본에 대한 번역 및 연구를 통해 각 이본이 지닌 시대적·사상적·문화적 의미를 도출할 수 있다. 둘째, 종래 광문회본 『택리지』에 천착했던 연구에서 벗어나 이본을 활용한 학제 간 연구를 통해 새로운 지식정보를 도출할 수 있다. 셋째, 일반적으로 정본화 작업이 완료되면 도외시하던 이본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고 향후 이본 연구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본 사업의 성과가 디지털 인문학적 방법론을 적용한 고전 문헌 연구의 발전에 작은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

주제어 : 이중환, 『택리지』, 이본 연구, GIS, 디지털 인문학

I. 서론

李重煥(1690~1756)의 『擇里志』는 18세기 조선 지리학의 명저로 손꼽히는 저술이다. 「八道論」과 「卜居論」을 주제로 삼아 팔도의 살기 좋은 지역, 산수가 빼어난 곳, 경제의 중심지 등을 독창적인 시선으로 평가하고 정리하였다. 『택리지』는 1751년에 초고본이 완성된 직후 사대부들의 주목을 받았으며, 1756년경 개정본이 세상에 나오자 전국적으로 필사되어 유통되면서 방대한 異本이 양산되었다. 선행연구에서 밝힌 것처럼 200종 이상의 이본이 현전한다. 『택리지』는 그 문헌의 중요성으로 인해 현재까지 여러 종의 번역서가 출간되었으며,¹⁾ 문학·지리학·역사학·민속학·조경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택리지』 이본 가운데 23종의 주요한 이본을 선정하여 교감한 뒤, 이증환 저술 당시의 원형에 가까운 ‘정본’ 텍스트를 확정하여 번역한 『완역 정본 택리지』(안대회·이승용 외 역, 휴머니스트, 2018)가 출간되었다. 종래에 이미 다수의 『택리지』 번역서가 나온 상황에서 『완역 정본 택리지』는 몇 가지 중요한 연구사적 의의를 지닌다. 첫째, 기존의 번역서는 모두 1912년 崔南善이 간행한 조선광문회본을 저본으로 삼았으나, 여러 필사본과 대조한 결과 광문회본은 『택리지』의 이본 중 하나에 불과함을 밝혀내었다. 둘째, 이증환이 『택리지』를 완성하기까지 초고본과 개정본이라는 두 가지 버전의 텍스트가 탄생한 사실을 입증하였다. 셋째, 柳重臨(1705~1777)이 『택리지』를 대폭 축약하고 재편한 『東國山水錄』(『增補山林經濟』 수록)의 영향이 감지되는 이본을 비롯하여, 정본화 작업으로 포괄할 수 없을 정도로 대대적인 개작이 이루어진 寫本들이 다수 존재함을 포착하였다. 『택리지』가 傳寫되는 과정에서 별도의 연구가 필요한 이본들이 출현한 것이다.

『완역 정본 택리지』 출간과 맞물려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에서 ‘『택리지』 이본 종합DB’ 사업을 수행하였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토대연구지원사업에 선정되어

1) 『택리지』 번역서를 시대순으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윤석원 역, 『택리지』, 북한(평양): 사회과학원 출판사, 1964; 노도양 역, 『택리지』, 자유교양사, 1968; 이익성 역, 『택리지』, 을유문화사, 1971; 이영택 역, 『택리지』, 삼중당, 1975; 이민수 역, 『(국한문대역) 택리지』, 평화출판사, 2005; 허경진 역, 『택리지』, 서해문집, 2007; 신정일 역, 『신정일의 새로 쓰는 택리지』, 다음생각, 2012; 안대회·이승용 외 옮김, 『완역 정본 택리지』, 휴머니스트, 2018 등. 『완역 정본 택리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광문회본을 대본으로 삼았다.

3년간(2018.07.01.~2021.06.30.) 『택리지』 이본 30종을 대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간의 통상적인 DB화 사업과 비교할 때 본 연구과제는 다소 돌출한 측면이 있다. 문헌의 판본이 여러 종일 경우 정본화 작업이 중시되는 현실과 달리, 일반적으로 알려진 『택리지』와 전혀 다른 내용을 담았거나 자의적인 개편을 단행한 이본들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수많은 이본에 산재한 각각의 특징들은 정본화 작업을 통해서 이루 다 수렴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심할 뿐 아니라, 그 형태도 다양하다.

이 글은 본 사업의 경위와 주요 성과를 되짚어보고, 디지털 인문학의 측면에 입각하여 사업의 학술적 의의와 후속 연구로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정본과 이본 간의 뚜렷한 차이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한 『택리지』 이본 종합DB 사업은 이본 연구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택리지』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 논문이 향후 디지털 인문학 방법론을 적용하는 데 하나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

Ⅱ. 사업의 개요

현전하는 『택리지』 이본 중에는 정본 『택리지』와 전혀 다른 형태의 독특한 이본이 다수 존재한다. 단지 서명과 편목, 자구의 차이 등에 국한되지 않고 저마다 판이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이본 간 차이는 초고본과 개정본이 뒤섞여 전해진 특수한 사정²⁾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와 별개로 시기별 · 지역별 · 당파별로 필사자가 자의적 개작을 시도한 결과물인 경우가 많다. 즉 이중환이 저술한 『택리지』의 내용이 1750년대 이후의 시대 변화상을 반영하지 못한 경우, 『택리지』에 기록된 지식정보가 소략하거나 사실관계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지역이나 당파와 관련한 기술이 다소 편향되었다고 인식한 경우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필사본 간의 내용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다.

2) 초고본과 개정본, 그리고 『東國山水錄』 계통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안대회, 「이중환의 『택리지』 개정과 이본의 형성」, 『민족문화연구』 79,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8b; 안대회, 「『택리지』의 篇目과 이본의 구조 및 계통」, 『동방학지』 183, 연세대 국학연구원, 2018c 참조.

『택리지』에 대한 그간의 연구 경향을 돌이켜보면, 『완역 정본 택리지』의 출간과 함께 200여 종을 상회하는 이본을 도외시하기 쉽다. 그러나 내용 및 형식상 변개가 심한 이본은 18세기 후반~20세기 초 『택리지』를 수용하는 다양한 방식을 보여줄 뿐 아니라, 국토를 바라보는 고유한 시각과 관점을 견지한 자료로서 정보와 차별되는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현전하는 이본을 최대한 검토하여 학술적 가치가 있는 텍스트를 가려내고, 이들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택리지』 이본 종합DB 사업은 바로 이러한 목표로 기획되었다. 이 장에서는 본 사업의 전반적인 경과를 개괄한다.

먼저 국내외 기관과 개인이 소장한 ‘필사본’ 『택리지』를 전수조사하여 목록을 작성하였다.³⁾ 국내외 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 한국고문헌종합목록(KORCIS)을 기반으로 조사하되, 연세대, 고려대, 서울대 규장각, 한중연 장서각, 성균관대 존경각 등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청구기호와 서지사항을 정확히 파악했으며, 박물관 등 공공기관은 e뮤지엄 사이트에서 소장품 현황을 확인하였다. 해외 기관은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 사이트를 주로 활용하고, 일본 Kanseki Database와 중국 국가도서관全國古籍普查登記基本數據庫에서도 검색을 진행하였다. 3년의 연구 기간 동안 이본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한 결과 총 208종의 택리지 이본 목록을 완비하였고, 그중 149종을 실제로 열람하여 주목되는 특징을 면밀하게 살폈다.

이 가운데 『정본 택리지』와 비교하여 내용과 편차가 확연히 다르거나 특정 계통의 경향성을 뚜렷이 보여주는 이본 30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초고본, 개정본, 『동국산수록』의 상위 계통 외에 몇몇 하위 계열이 유통된 상황을 포착함에 따라⁴⁾ 유사한 사본 중에서도 善本에 해당하는 텍스트를 엄선하고자 하였다. 선본의 판별 기준은 필사자를 확정(또는 추정)할 수 있는 필사기나 後識, 그리고 수장 내력을 알 수 있는 장서인이 있는 경우, 서발문과 부록의 수록 양상이

3) 『택리지』 이본은 70여 가지의 다양한 서명이 존재하므로, 검색 결과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서명의 빈도를 고려하여 ‘택리지’(와 ‘이중환’) 및 ‘八域’, ‘卜居’, ‘東國山水’, ‘士大夫可居處’, ‘震維勝覽’, ‘總貨’ 등을 주요 검색어로 삼았다. 대부분 필사본의 형태로 전하고 있으며, 1885년 중국에서 간행된 『朝鮮地理小志』, 1910년 조선고서간행회 편 『八域誌』, 1912년 조선광문회 편 『擇里志』, 1923년 우문관서회 편 『朝鮮八道秘密地誌』는 신연활자본이다.

4) 임영길, 「『擇里志』 異本の 계통에 대한 補論」, 『고전번역연구』 11, 한국고전번역학회, 2020b에서 유사성을 띠는 이본군을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그 특징을 제시하였다.

특이한 경우, 오탈자·연문·결락·착간 등이 적은 경우 등을 우선하였다. 이상의 사항들을 토대로 확정된 30종의 연구 대상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서명은 표제가 아닌 권수제(내제)임을 밝혀둔다.

〈표 1〉 『택리지』 이본 종합DB' 연차별 연구 대상 목록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1	士大夫可居處 (장서각, 귀K3-650)	東國山水錄 (규장각, 一簣 古630.2-J572)	八域可居誌 (개인)
2	士大夫可居處 (개인, 南夏行 친필본)	擇里誌 (개인, 黃裳 친필본)	鰈域通志 (고려대, 아연 B10 A3N)
3	小華誌 (국립중앙도서관, 성호古2700-81)	擇里誌 (동국대, D 911.51이77ㄷ2)	八域誌 (부산대, OEC 2-11 5A)
4	東國八域志 (연세대, 고서III 4294 0)	擇里誌 (규장각, 一簣 古915.1-Y58t)	朝鮮總論 (연세대, 915.1 이중환지)
5	東國山水論可居誌 (고려대, 신암 B10 A3G)	卜居說 (하버드대, TK 3490.8-4429.2)	士大夫八域可居誌 (고려대, 만송B10 A185)
6	擇里誌 (도쿄대, J30 558)	震維勝覽 (규장각, 奎7732)	震維勝覽 (규장각, 古4790-38)
7	八域可居處 (규장각, 古4790-55)	靑華山人八域誌抄 (성균관대, B16AB-0007a)	卜居說 (연세대, 고서(I) 915.1 이중환 해)
8	擇里誌 (와세다대, ㄴ04 02488 1-2)	總貨 (이화여대, 古 915.1 이817ㄷ)	邱隅誌 (국립중앙도서관, 古2709-3)
9	博綜誌 (규장각, 奎3742)	擇里誌 (장서각, K2-4190)	朝鮮地理小志 (하버드대, TK 3490.8 4429.3)
10	卜居說 (국립중앙도서관, 古2701-8)	擇里誌 (동국대, D 911.51이77ㄷ3)	東國地理解 (프랑스국립도서관, 애산학보 영인)

연차별 대상 자료는 선행연구에서 밝힌바 이본의 세 가지 계통에 의거하여 배속하였다. 즉 1차년도에는 ‘초고본’ 계통을 위주로 대상 자료를 선정하고, 2차년도에는 ‘개정본’ 계통과 ‘동국산수록’ 계통을 위주로 선정하여 계통 간의 차이를 거시적으로 조감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으며, 3차년도에는 본문의 내용, 편목과 구성 등에서 더 다양하고 세밀한 양상이 미시적으로 나타난 이본을 중심으로 연구 대상을 확정하였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본 연구의 결과물은 『택리지』 이본의 주요한 서명을 포괄한다. 연차별 이본의 특징을 간략히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1차년도에서 鵝州 洪重寅(1677~1752)의 『鵝州雜錄』에 수록된 『사대부가거처』와 潛翁 南夏行(1697~1781) 친필본 『와유록』에 부록된 『사대부가거처』는 가장 이른 시기에 필사된 초고본이다. 두 필사본 모두 권수제가 ‘士大夫可居處’로 되어 있어 이중환이 1751년 무렵 완성한 초고본의 원 서명이 『사대부가거처』였음을 뒷받침한다. 『소화지』는 星湖 李瀾(1681~1763) 집안에 전해온 이본으로서 잠옹본과 유사하면서도, 축약과 변경가 심한 잠옹본의 기술을 개정본의 내용을 참고하여 보완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고려대 소장 『동국산수론가거지』(표제: 東國山水誌)와 규장각 소장 『박종지』는 『동국산수록』 계통에 속하는 사본이다. 『동국산수록』은 1766년 이전 유증림이 『증보산림경제』를 편찬하면서 『택리지』를 재편집하고 제목을 바꾸어 수록한 뒤 널리 읽힌 책이다. 『동국산수론가거지』와 『박종지』는 복거론에 이어 팔도론을 수록하는 『동국산수록』의 편목 순서를 따르고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전자는 초고본 계통에 속하고 후자는 개정본 계통에 속하여 『동국산수록』 계통에도 초고본과 개정본의 형태가 혼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연세대 소장 『동국팔역지』는 초고본 계통에만 수록된 이익의 서문이 있고, 규장각 소장 『팔역가거처』(표제: 擇里誌)는 개정본 계통으로 정언유의 서문과 이중환·목회경·목성관·이봉환 4인의 발문이 실려 있어 가장 많은 序跋이 실린 사본이다. 일본 와세다대 소장 『택리지』(乾·坤 2책)는 『동국산수록』의 영향을 받은 개정본 계통으로 파악된다. 책의 첫머리에 「서론」과 「결론」이 나란히 실려 있고, 南師古의 『十勝地』에서 초록한 「當難保身福地」가 첨부되어 있는 등 변형된 형태를 띤다. 일본 도쿄대 소장 『택리지』(표제: 形家要覽)는 여러 장의 지도와 필사기가 삽입되어 있으며, 세세한 목차를 첨부하고 「복거론·인심」을 마지막 순서로 배치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복거설』(표제: 箕方卜居說)은 자의적 수정이 많아 특정 계통으로 분류하기 어려우나, 전반적으로 문장이 조리 있게 다듬어져 있으며 정본과 다른 서술이 많다.

2차년도에서 규장각 소장 『동국산수록』은 유증림 수택본 『증보산림경제』 16책에 편성된 사본으로서 『동국산수록』의 원형을 보여준다. 또한 扈園 黃裳(1788~1870)의 『扈園叢書』에 수록된 『택리지』는 이중환의 편목 설정을 거부하고 항상 개인의 관점에 따라 내용을 완전히 새롭게 개정하여 참신한 국토 인식이 드러난다.⁵⁾ 동국대 소장 『택리지』는 『동국산수록』 계통의 또 다른 형태로 ‘紅荳山人鈔’라는 표기가 있

고, 단군부터 고려까지의 역사 연혁과 팔도의 거리가 부록으로 첨부된 것이 특징이다. 규장각 소장 『택리지』는 전형적인 개정본 계통이면서 정언유의 서문과 이중환·목회경·목성관·이봉환 4인의 발문이 모두 수록되어 있다. 특히 「팔도론·함경도」에 함흥차사 전설이 실려 있고, 「복거론·인심」의 일부 내용이 정본과 다르며, 부록으로 이익의 『星湖僊說』 「生財」와 「糶糴」을 발췌한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미국 하버드대 소장 『복거설』(표제: 左海踏遍錄)과 규장각 소장 『진유승람』은 頭註와 小字 雙行의 형태로 정보를 부연하고 있어 필사자의 학적 관심사를 파악할 수 있다. 존경각 소장 『청화산인팔역지초』와 이화여대 소장 『충화』(표제: 四民摠論)는 특정 서명이 동일한 이본군을 판별하는 준거가 됨을 보여준다. 장서각 소장 『택리지』는 「팔도론」이 빠져 있고 「복거론」만 있는 대신에, 서울에서 전국 각 지점까지의 거리를 자세히 기록한 ‘道路篇’과 전국 각 고을의 장날을 정리한 ‘場市篇’이 추가되어 있다. 동국대 소장 『택리지』(표제: 八域誌)는 崔彦淑이 쓴 후지와 蝸廬散人이 쓴 발문이 실려 있어 현존하는 이본 중 드물게 필사자와 독자의 내력을 특정할 수 있는 이본이다.

3차년도에서 『팔역가거지』(표제: 可居誌)는 초고본 계통이지만 일부 개정본의 내용이 난외에 부기된 다소 난잡한 형태로, 필사자가 이본 간 내용의 차이를 인지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고려대 소장 『접역통지』, 부산대 소장 『팔역지』(표제: 震維勝覽), 연세대 소장 『조선총론』 3종은 모두 독특한 편목이 달려있고 편제가 다양한 순서로 개편되어 있어 주목된다. 고려대 소장 『사대부팔역가거지』(표제: 八域誌)는 「복거론·인심」이 <산수> 뒤에 배치되어 있으며, 다른 이본에 없는 내용이 소자쌍향으로 부기되어 있다. 규장각 소장 『진유승람』과 연세대 소장 『복거설』(표제: 海東八域誌)은 유사한 이본이 각기 다른 형태로 분화된 양상을 잘 보여준다. 즉 두 사본은 서발문과 편목이 없고, 「팔도론 서설」의 첫 문장이 “原夫…”로 시작하며, 함흥차사 전설이 삽입되어 있고, 서론과 결론을 통합하여 책의 맨 뒤에 배치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단, 『진유승람』은 「팔도론」-「복거론」 순으로 되어 있으나 『복거설』은 「복거론」(지리~산수통론)-「팔도론」-「복거론」(명산명찰~계거)으로 구성되어 있고, 「결론」의 절반 이상이 결락되었다. 또한 『복거설』은 서론의 첫 문장에 “李子曰……”이 생략된 반면, 『진유승람』은 “李徽祖曰……”로 시작하고 있어 ‘李子’가 이중환임을 분명히

5) 안대희, 「巨園 黃裳의 『擇里志』 개정과 증보」, 『한국문화』 84,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8c에서 지원본 『택리지』를 새롭게 발굴·소개하고 그 역사적 가치를 규명하였다.

밝혔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구우지』는 정본에 없는 내용들이 산견된다. 미국 하버드대 소장 『조선지리지』는 清末 江景桂가 간행한 『택리지』 抄本으로서 「팔도론」 위주로 발췌하되 새롭게 추가한 내용이 다수 수록되어 있다. 프랑스 국립도서관 소장으로 『애산학보』 제3집에 영인·수록된 『동국지리해』는 유일한 언해본 자료로서 18세기 후반~19세기 전반기에 『택리지』의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독했는지 파악할 수 있어 중요도가 높다.

다음으로 매년 10종씩 원문을 입력하고 표점 작업을 진행하였다. 원문 텍스트는 최대한 이본의 원형대로 입력하되, 명백한 오자 및 연자나 연문인 경우에만 주석을 달아 정본상의 글자를 안내하였다. 이와 동시에 『정본 택리지』를 대본으로 하여 교감 작업을 병행하였다. 교감의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을 개괄하여 해제를 작성했으며, 내용의 첨삭, 수정, 증보, 개편 등이 단행된 대목은 별도의 이본대조표로 정리하였다. ‘이본대조표’와 해제의 ‘목차대조표’는 정본과 변별되는 이본의 고유한 특성을 부각하는 데 효과적인 방안이다.

해제는 크게 서지사항, 편목사항, 특이사항으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서지사항은 표제, 권책수(면수), 판본형태, 간행연도, 행자, 규격, 소장처, 청구기호, 표기문자, 장서인, 필사기, 계열의 항목으로 세분하여 표로 정리한 것이다. 편목사항은 해당 이본의 편목 구성을 도식화한 것으로, 『정본 택리지』와 비교하여 이본에 나타나는 편제의 개편 양상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목차대조표를 삽입하였다. 다음은 목차대조표의 예시이다.

〈표 2〉 『정본 택리지』와 『東國山水論可居誌』의 목차대조표

정본 택리지		東國山水論可居誌	
序文		(卜居論)	(卜居論 序說)
序論			地理爲上
八道論	八道論 序說		生利爲次
	平安道		人心爲次
	咸鏡道		山水爲次
	黃海道	八道山水	平安道
	江原道		咸鏡道
	慶尙道		黃海道

	全羅道			江原道	
	忠淸道			慶尙道	
	京畿道			全羅道	
卜居論	卜居論 序說		東國勝區說	忠淸道	
	地理			京畿道	
	生利	貿遷		總論江居	
	人心			總論溪居	
	山水	山水通論		總論野居	
		名山名刹		八道中最高十二大名山	
		都邑隱遁		此四山與嶺脊八山爲國中大名山	
		海山		四郡之二潭三巖	
		嶺東山水		關東八景	
		四郡山水		又稱嶺東六湖之勝景	
		江居		地以大名刹爲稱者	
		溪居		青華山人自撰可居誌跋文	
結論		士大夫來歷及偏論出後處身難			
跋文		古之士爲農工賈今有士大夫名目			

원편은 『정본 택리지』의 편목이고, 오른편은 고려대 소장본 『동국산수론가거지』(표제: 東國山水誌)의 편목이다. 편목이 달려 있지 않은 경우는 괄호 안에 『정본 택리지』의 편목을 기입하였다. 『정본 택리지』의 기본 체재인 서문·서론·팔도론·북거론·결론·발문을 기준으로 보면, 『동국산수론가거지』의 편목과 구성에 확연한 차이가 드러난다. 즉 『정본 택리지』의 경우 「팔도론」이 먼저 나오고 그 뒤에 「북거론」이 나오는 반면, 『동국산수론가거지』는 「북거론」을 해체하여 <지리>부터 <산수통론>까지 책의 첫머리에 배치하고 ‘八道山水’라는 편목 하에 「팔도론」과 「북거론·산수」의 ‘江居’와 ‘溪居’ 항목을 수록한 다음, 다시 ‘東國勝區說’이라는 편목 하에 「북거론·산수」의 ‘名山名刹’부터 ‘溪居’까지의 내용을 배치한 형태로 개편하였다. 그 뒤에 이중환의 발문이 이어지고, ‘士大夫來歷及偏論出後處身難’이란 제목으로 결론이, ‘古之士爲農工賈今有士大夫名目’이란 제목으로 서론이 차례로 실린 독특한 편제이다.

이본대조표는 목차대조표와 마찬가지로 『정본 택리지』와의 비교를 통해 해당 이본에서 추가·삭·변개된 내용이 무엇인지 일목요연하게 안내한 양식이다. 다음은 황상의 『치원총서』에 수록된 『택리지』(이하 치원본 『택리지』)와 『정본 택리지』를 비교한 이본대조표의 일부이다.

〈표 3〉 『정본 택리지』와 扈園本 『擇里志』의 이본대조표(일부)

연번	대목차	소목차	내용	
			정본	이본
1	八道論	平安道	平壤西百餘里爲安州，臨清川江上，有百祥樓，樓傍有七佛寺。高句麗時，隋兵至江上，有七僧前渡，水不沒膝。隋兵隨而長驅，先鋒一陣淪焉，兵退而僧仍不見。土人德之，建寺祀之。	安州前臨薩水，有百祥樓之勝，亦灣·沮之間一大都會也。兵營舊在寧邊，丙子之難，清兵不顧寧邊，直過薩水，故移兵營於安州。
2	八道論	咸鏡道	咸興府爲監司所治。始一道不知文學矣，我十代祖敬憲公諱繼孫，成廟朝莅監司，擇俊秀少年，廩養而教以經史行誼。自是文學蔚興，間有中科甲者，土人謂破天荒。及敬憲公卒，鄉人建祠俎豆之至今。城臨君子河，上有萬歲橋，橋長五里。城南門上有樂民樓，全攬一邑之勝，與平壤練光亭相甲乙。野曠邈接海，風氣雄壯驚悍，不及平壤之秀嫩明麗。	咸興府，監司也。城臨君子河，上前有萬歲橋，橋長五里。城南門上有樂民樓，全攬一邑之勝，與平壤之練光亭相甲乙。然野勢迫接東海，風氣雄壯驚悍，不及平壤之秀嫩明麗矣。○始一道不知文字矣，李敬憲公繼孫，成廟朝爲監司，教人經史，多出科甲，土人謂破天荒。
3	八道論	黃海道	海州爲監司所治，在首陽之陽，而海水闔兩山間，滙渟於面前山外，爲一大湖，土人謂之小洞庭。潔城實據其勝，頗有臨眺之致。昔栗谷爲監司，得石潭泉石於首陽山中。罷官後，築室講學，京城及四方遊士多從之。及栗谷歿，建祠俎豆於中，門人子孫仍世居，而奉其風教文禮，科甲冠於一道。及衰，鄉人借學宮，分朋攻擊如仇讎，世目以惡鄉矣。	海州在首陽之陽，海水闔兩山間，滙渟於面前山外，爲一大湖，土人謂之小洞庭。潔城[在海中]實據其勝，頗有臨眺之致。○昔栗谷李珥爲監司，得石潭泉石於首陽山中。罷官後，築室講學，京城及四方遊士多從之。及沒，仍建祠寓慕，而門人子孫居之，故科甲冠於一道。

지면의 한계로 평안도, 함경도, 황해도의 각각 하나의 기사만을 제시했으나, 위 대조표를 통해 치원본 『택리지』의 변개된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택리지』 이본을 하나하나 교감해보면 평균 1,000개가 넘는 교감주가 생겨나거니와, 특히 편차를 개편한 이본의 경우에는 주석으로 달거나 이본대조표를 만드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그 차이가 극심하다. 따라서 자구의 출입으로 인한 사소한 차이와 단순 오류로 판단되는 사항은 제외하고, 주관적인 시각이 개입된 기사를 판단하여 새로운 내용으로 기술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본대조표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본대조표는 이본 전체를 통독하여 일일이 확인하는 수고를 덜어주는 기능을 하며, 원전 텍스트를 낱낱이 숙지하고 있지 않아도 해당 이본의 특징적인 기사를 간취할 수 있게 한다.

마지막으로 원문 입력과 표점 작업을 완료한 이본에서 인명, 지명, 명승에 해당하는 용어들을 추출하여 태깅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동일한 지명을 놓고도 이본마다 표기가 상이한 경우가 많으므로, 『신증동국여지승람』과 고지도 상의 명칭을 기준으로 삼아 대표명을 확정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거쳐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연구자는 『택리지』의 주요 이본에 편리하게 접근하고 각 이본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으며, 텍스트에 표시된 색인어 정보를 검색하여 연구에 활용할 수 있다.

Ⅲ. 연구 결과의 주요 사례

본 사업의 대상인 30종의 『택리지』 이본에는 주목되는 특징이 각기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정본 택리지』와 비교하면 크게 네 가지 사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여 기존의 내용을 보완한 경우이다. 둘째, 내용을 수정하거나 개작한 경우이다. 셋째, 필사자의 주관적인 평가를 반영한 경우이다. 넷째, 다른 자료에서 확인할 수 없는 고유한 정보가 기록된 경우이다. 각 사례별로 인용문을 제시하고 그 내용을 분석한다.

1. 지식정보의 보완

『택리지』 이본에는 이중환이 저술한 『택리지』에 필사자가 새롭게 추가한 내용이

다수 발견된다. 이는 필사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덧붙인 것으로 지리정보는 물론이고, 인물에 관한 일화, 명승에 관한 내력, 지역 전설 등 그 범주가 다양하며, 본문 안에 편입하거나 세주 또는 두주의 형태로 부기하는 등 그 방식 또한 다양하다. 그중에서 『정본 택리지』와 『小華誌』에서 각각 양평의 용문산 일대를 기술한 대목을 살펴본다.

- 『정본 택리지』:

楊根의 龍門山 북쪽에 迷遠村이 있다. 옛날 靜菴 趙光祖가 이 마을의 산수를 사랑하여 살 곳으로 삼고자 하였다. 내가 일찍이 그 마을을 보았더니, 산중에 조금 넓게 트여 있기는 해도 땅이 깊고 막힌 데다 기운도 스산하고 썰렁하였다. 사방의 산이 우아하지 못하고 앞에 시냇물이 너무 울며 흘러서 살기 좋은 땅이 아니었다.⁶⁾

- 『小華誌』(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양근 용문산 동남쪽에 南村 王忠里가 있다. 조선 초 이름난 재상인 夏亭 柳寬이 살던 곳이다. 유관은 忠義로 太祖·定宗·太宗·世宗 네 임금을 섬겼다. 그 言議와 心術로 국초에 「論母岳疏」를 많이 올려 한양에 도읍을 정하였다. 沙賊(홍건적)이 북쪽 변방에 쳐들어와 국가가 남쪽 땅으로 피란했을 때 충성을 다하다가 병을 얻어 졸하여 마침내 西山에 장사지냈다. 세종이 부음을 듣고서 소찬을 올리고 백의로 백관을 거느려 舉哀하고, 정암 조광조로 하여금 賜祭하게 하니 정암이 그 묘소에 이르러 비로소 왕충리가 되었다. 용문산 북쪽에 미원촌이 있어, 옛날 정암 조광조가 그 산수를 사랑하여 살 곳으로 삼으려는 뜻이 있었다. 내가 일찍이 그 마을을 보았더니, 산중에 넓게 트여 있는 땅이 적긴 해도 땅이 깊고 막힌 데다 기운도 스산하고 썰렁하였다. 사방의 산이 우아하지 못하고 앞에 시냇물이 너무 울며 흘러서 또한 살 만한 땅이 아니었다.⁷⁾

6) 이중환, 『택리지』, 「八道論·京畿道」, “楊根龍門山北有迷遠村, 昔趙靜菴光祖, 愛山水, 欲卜居. 余嘗見之矣, 山中雖少恢拓, 地既深阻, 氣亦凄寒, 四山不雅, 前溪太咽, 非樂土也.” 이하 『정본 택리지』의 원문 및 번역은 안대희·이승용 외 옮김, 『완역 정본 택리지』, 휴머니스트, 2018을 따른다.

7) 『小華誌』(성호초2700-81), 「八道論·京畿道」, “楊根龍門山, 東南有南村王忠里, 國初名相夏亭柳寬之址, 以忠義事於太祖·定宗·太宗·世宗四朝也. 其言議心術, 多國初論母岳疏, 定都于漢陽, 沙賊闖入北鄙, 國家播遷南土時, 盡忠得病卒, 因葬西山. 世宗聞訃, 進素白衣, 率百官舉哀, 而使趙靜庵賜祭, 靜庵至其墓所, 始爲王忠里. 山北卽迷源村, 昔靜菴光祖, 愛其山水, 有卜居之意. 余嘗見之矣, 山

두 인용문은 모두 「팔도론·경기도」에서 양평의 용문산과 관련한 기록이다. 『소화지』는 성호 이익 집안의 소장본으로 추정되는데 『정본 택리지』에 실리지 않는 내용이 산재해 있다. 위 인용문에 제시한 내용 외에도 「팔도론·함경도」에서 고려 시대의 역사기록을 세주로 추가하였고, 「팔도론·전라도」에는 전라도를 대표하는 인물과 그 출신지를 더욱 자세하게 기술했으며, 「북거론·무천」 및 <인심>과 <산수>에도 정본에 수록되지 않은 내용이 다수 실려 있다.

『정본 택리지』에는 용문산의 미원촌과 조광조에 대한 기록과 함께 이중환의 개인적인 평가가 첨가되어 있다. 반면에 『소화지』의 필사자는 용문산 일대 고을 중 왕충리에 특별히 주목하여 지명의 유래에 얽힌 사건을 추가함으로써 조광조가 미원촌과 인연을 맺게 된 과정을 보완하였다. 왕충리는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에서 용문산 일대의 고을로 소개되어 있지만 『정본 택리지』 및 다른 이본에는 등장하지 않는 곳으로서 특정 지역에 대한 정보가 더해진 대표적인 사례이다.

2. 내용의 수정과 개작

『택리지』의 이본에는 이중환이 기술한 『택리지』의 내용을 의도적으로 수정하거나 대폭 개작한 사례들이 산견된다. 이는 이중환의 인식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중 주목되는 사례로 「팔도론·전라도」에서 전라도 출신 명사들을 열거한 대목을 들면 다음과 같다.

- 『정본 택리지』:

高峯 奇大升은 光州 사람이고, 一齋 李恒은 扶安 사람이며, 河西 金麟厚는 長城 사람으로 이들은 모두 道學으로 이름이 높았다. 霽峯 高敬命과 健齋 金千鎰은 光州 사람으로 절의로 이름이 높았다. 孤山 尹善道는 海南 사람이고, 默齋 李尙馨은 南原 사람으로 문학으로 이름이 높았다. 장군을 지낸 鄭地와 판서를 지낸 林潭이 무안에 살았다. 단학으로 이름난 자를 들자면 道사였던 南宮斗가 咸悅 사람이고 靑霞 權克中이 古阜 사람인데, 수련과 방술로 이름이 높았다.⁸⁾

中雖少恢拓之地, 地既深阻, 氣亦凄寒, 四山不雅, 前溪太咽, 亦非可居之地也.”

8) 이중환, 『택리지』, 「八道論·全羅道」, “奇高峯大升光州人, 李一齋恒扶安人, 金河西麟厚長城人, 并以道學稱. 高霽峯敬命·金健齋千鎰, 俱光州人, 并以節義稱. 尹孤山善道海南人, 李默齋尙馨南原人,

- 『八域可居處』(규장각 소장):

思菴 朴淳·河西 金麟厚·高峯 奇大升·訥齋 朴祥·霽峯 高敬命·健齋 金千鎰·翼虎 金德齡·錦南 鄭忠信·治川 朴紹·松齋 羅世績·白湖 林悌·錦湖 林亨秀·正郎 林檜·松川 梁應鼎·一齋 李恒은 모두 문장·청현·충의·절의로 이름이 높았고 장수로도 이름이 높았다. 石川 林億齡·橘亭 尹衢·錦南 崔溥·眉巖 柳希春은 해남 사람이며, 滄洲 羅茂松·茂春 형제·俛仰 宋純은 문장과 절의로 이름이 높았고 담양 사람이다. 牛山 安邦俊·學圃 梁彭孫·松江 鄭澈·畸翁 □□·知止堂 宋欽·睡隱 姜沆·嘿齋 李尙馨·吳謙은 淸節과 顯達로 이름이 높았다. 문학으로는 靈巖의 玉峯 白光勳·孤竹 崔慶昌이 있고, 맑고 고결하여 현달한 이는 李繼孟·申末舟·靑蓮 李後白·林潭·林泳이 있으니 羅州·務安 사람이다. 道士 南宮斗는 咸悅 사람으로 丹學으로 일컬어진다. 靑霞 權克中은 古阜 사람인데 수련과 방술로 이름이 높았다.⁹⁾

『정보택리지』에 비해 규장각 소장본 『八域可居處』(표제: 擇里誌)에 더 많은 인물이 수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팔역가거처』의 朴淳·朴祥·金德龍·鄭忠信·朴紹·羅世績·林悌·林亨秀 등은 이중환이 기록하지 않은 인물들로, 당색에 구애되지 않고 전라도를 대표할 만한 인물을 최대한 소개하고자 한 시도로 판단된다. 필사자가 전라도 출신이거나 전라도와 관련 있는 인물이라는 추정도 가능하다. 실제로 이중환은 전라도에 대해 다소 부정적으로 기술한 것으로 평가된다. 치원본 『택리지』에서 이러한 부정적인 지역 평가에 적극적으로 반론을 펼치고 있다.¹⁰⁾ 이 같은

并以文學稱. 鄭將軍地·鄭錦南忠信, 并光州人, 亦以將帥稱. 吳贊成謙光州人, 李議政尙真全州人, 以宰相顯達, 而文翰則古阜白光勳·靈巖崔孤竹慶昌. 寓居則申府尹末舟居淳昌, 李貳相繼孟居金提, 李判書後白居海南, 林判書潭居務安. 丹學則南宮道士咸悅人, 權靑霞克中古阜人, 又以修鍊方術著名.”

9) 『八域可居處』(古4790-55), 「八道論·全羅道」, “思庵朴淳·河西金麟厚·高峰奇大升·訥齋朴祥·霽峰高敬命·健齋金千鎰·翼虎金德齡·錦南鄭忠信·治川朴紹·松齋羅世績·白湖林悌·錦湖林亨秀·正郎林檜·松川梁應鼎·一齋李恒, 皆文章淸顯, 忠義直節, 而又爲將帥稱. 石川林億齡·橘亭尹衢·錦南崔溥·眉巖柳希春, 海南人也. 滄洲羅茂松·茂春兄弟·俛仰宋純, 文章直節稱, 潭陽人也. 安牛山邦俊·梁學圃彭孫·鄭松江澈·畸翁□□·知止堂宋欽·睡隱姜沆·默齋李尙馨·吳謙, 皆以淸節顯達稱. 文翰則靈巖之白光勳玉峯·崔慶昌孤竹, 顯達淸介則李繼孟·申末舟·靑蓮李後白·林潭·林泳, 羅州·務安人也. 南宮道士咸悅人, 以丹學稱. 權靑霞克中古阜人, 以修鍊方術著名.”

10) 치원본 『택리지』에 나타난 황상의 전라도 인식과 평가는 안대회, 앞의 2018e 논문, 89~97면 참조.

『택리지』의 특성을 고려할 때 『팔역가거처』의 경우는 『택리지』의 정보를 단순히 보완한 것이 아닌, 전라도에 대한 이중환의 각박한 평가를 해명하는 차원에서 단행된 수정(또는 개작)으로 해석하는 편이 타당하다.

3. 주관적 평가의 반영

이중환은 『택리지』에서 살기 좋은 지역에 대한 정보를 서술하면서 개인적인 견해를 피력하였다. 이중환의 독창적인 시각은 후대 독자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일부 이본에서는 이중환의 시각과 다른 필사자의 주관적인 평가가 발견된다. 이는 해당 이본이 『정본 택리지』와 전혀 다른 성격의 책으로 변모했음을 보여준다. 다음은 『정본 택리지』와 치원본 『택리지』에 실린 황해도 관련 서술이다.

- 『정본 택리지』:

무릇 황해도는 한양 서북쪽에 위치하고, 땅은 평안도나 함경도와 인접하여 풍속이 활 쏘고 말 타는 것을 좋아하는 반면 학문하는 선비가 적다. 산과 바다 사이에 끼어 있어서 납과 철광석, 면화와 찹쌀, 뽕싹 그리고 생선과 소금을 생산하고 팔아 이익을 얻는다. 따라서 부유한 사람이 많으나 대신 사대부 가문은 드물다. 그렇지만 평야에 있는 여덟 개의 고을은 토질이 비옥하고, 바닷가에 있는 열 개의 고을은 명승지가 많으므로 거주하지 못할 정도의 땅은 아니다. 땅의 형세가 서해로 불쑥 들어가서 삼면이 바다를 등지고 있고, 동쪽 한 방면에만 남북으로 통하는 큰길이 있다. 그러나 북쪽으로 절령에 가로막히고, 남쪽으로는 예성강과 임진강에 막혀 있다. 안과 밖이 산과 강이고, 내륙에는 요새와 성곽이 많으며, 비옥한 평야가 펼쳐져 참으로 하늘이 만들어준 곡창지대이자 무력을 키울 만한 땅이다. 천하의 요충지로서 큰일이 나면 전쟁이 벌어지기 십상이니 이것이 황해도의 단점이다.¹¹⁾

11) 이중환, 『택리지』, 「八道論·黃海道」, “大抵一道處國都西北, 地隣平·咸, 俗喜弓馬, 而鮮文學之士. 介山海間, 有鉛鐵·綿絮·稻粱·魚鹽之利. 故雖多富厚者, 亦少士大夫家矣. 然野中八邑, 土既膏沃, 海上十邑, 地多名勝, 亦非不可居之地. 地勢陡入西海, 三面負海, 獨東一路當南北通行之大路. 然北有岳嶺, 南阻重江, 表裏山河, 內多巖險城郭, 又有沃野腴原, 眞天府用武之國也. 天下有事, 當爲要衝爭戰之場, 此其所短也.”

- 『擇里志』(『卮園叢書』 수록):

황해도 한 도를 통틀어 모두 흙산에 기이한 봉우리와 뽕족한 멧부리가 없다. 猪灘(예성강 상류)의 강물은 누렇게 혼탁하고 진흙이라 맑은 물과 빠른 여울이 없다. 따라서 그 풍속은 완악하고 아둔하고 어리석으며, 예로부터 문장을 잘하거나 도덕이 훌륭한 선비와 재능이 뛰어나거나 특별한 기인이 없다. 또 비천한 백성들은 뻣뻣하여 관장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관장이 까닭 없이 수탈하면 비천한 백성들은 천 명이고 백 명이고 무리를 이루어 감사나 비변사에 찾아가서 호소하고 비록 그 때문에 죽더라도 후회하지 않는다. 그러나 질박하고 변하거나 속임이 없어 착한 풍속이라 아니할 수 없다.¹²⁾

위는 『정본 택리지』 「팔도론·황해도」의 마지막 단락이고, 아래는 치원본 『택리지』 「通論三」의 제6칙이다. 황해도 풍속에 대한 총평을 덧붙인 점은 동일하지만 그 내용이 전혀 다르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먼저 『정본 택리지』는 황해도의 지리적 특성을 설명한 뒤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 기술하였다. 생리가 어느 정도 갖추어진 땅으로 사대부 가문은 많지 않지만 명승이 많은 장점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지리적으로 평야가 펼쳐져 있어 풍요로운 땅이지만 전시에는 반드시 전쟁터가 되는 단점을 기술하였다. 반면, 치원본은 풍수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황해도를 분석한 뒤 이로 인해 명사가 배출되지 못한 단점을 지적하였다. 백성들의 기질이 드세어 관아에서 함부로 수탈하지 못하는 세태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반면 순수하고 솔직한 풍속은 황해도의 장점이라 하였다. 전자가 지리적인 측면에 기대어 황해도를 평가했다면, 후자는 풍속을 통해 장단점을 평가한 것으로, 이중환과 전혀 다른 시각이 드러난 이본만의 특징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4. 고유한 정보의 수록

『택리지』 이본 가운데는 다른 문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유의미한 정보가

12) 黃裳 節錄, 『擇里志』, 「通論三」, “黃海道通一道皆土山, 無奇峰尖嶸. 猪灘之水黃濁渾汚, 無清流激湍, 以故其俗多頑鈍闢茸. 自古無文章道德之士, 茂才異等之人. 又其小民木強, 不畏官長, 官長或非理, 侵漁小民, 千百爲群, 赴訴於監司備局, 雖死無悔. 然朴直, 無變詐, 未嘗非美俗也.” 안대희, 앞의 2018e 논문, 96면 재인용.

담긴 경우가 있다. 다음은 『정본 택리지』와 동국대 소장본 『擇里誌』(표제: 八域誌)의 「복거론·산수」 ‘名山名刹’ 조 기사이다.

- 『정본 택리지』:

화양동은 파곳 아래에 있다. 파곳의 물이 여기에 이르면 더욱 커지고, 바위도 더욱 기이해진다. 우암 송시열은 주자가 운곡에 지은 집을 본떠 골짜기에 집을 지었다. 또 대의를 회복하자는 주자의 주장에 따라 명나라 신종황제 제사를 지내려고 골짜기 가운데에 만동묘라는 사당을 건립하였다. 우암이 일찍이 다음과 같은 시를 지었다. “녹수는 성난 듯 시끄럽고, 청산은 화난 듯 말이 없어라.”¹³⁾

- 『擇里誌』(동국대 소장):

화양동은 파곳 아래에 있다. 파곳의 물이 여기에 이르면 더욱 커지고, 바위 또한 기이해진다. 재상 송시열이 주자가 운곡에 지은 집을 본떠 골짜기에 집을 지었다. 또 대의를 회복하자는 주자의 주장에 따라 명나라 신종황제를 제사 지내려고 골짜기 가운데에 만동묘라는 사당을 건립하였다. 우암이 일찍이 다음과 같은 시를 지었다. “녹수는 성난 듯 시끄럽고, 청산은 화난 듯 말이 없어라. 앉아서 산수의 뜻을 보니, 내가 홍진에 있음을 불평하네.” 산승이 여기에 다음과 같이 화답하였다. “녹수는 본래부터 성난 듯하고, 청산은 또한 웃지 않는 법이라. 만약 산수의 뜻을 알았다면 무슨 일로 홍진을 향하였는가?”¹⁴⁾

송시열이 경영한 화양동에 대한 내용이다. 『정본 택리지』에는 송시열의 시가 한聯만 실려 있으나, 『팔역지』에는 송시열의 시 전문과 이에 화답한 산승의 시가 함께 실려 있다. 송시열의 시는 『宋子大全』에 수록되지 않고 이중환의 『택리지』에 일부만 전하는 작품이다. 19세기에 편찬된 趙彦林의 시화 『二四齋記聞錄』에는 송시열과 산

13) 이중환, 『택리지』, 「卜居論·山水」, 〈名山名刹〉, “華陽洞在葩串之下, 葩串之水至此益大, 石亦益奇. 宋尤齋擬朱子雲谷, 築室於中, 又擬朱子恢復大義, 祀皇明神宗皇帝, 於洞中建祠曰萬東. 嘗有詩曰: ‘綠水喧如怒, 青山默似嘔云.’”

14) 『擇里誌』(D 911.51이77ㄹ3), 「卜居論·山水」, 〈名山名刹〉, “華陽洞在葩串之下, 葩串之水至此益大, 石亦奇. 宋相時說擬朱子雲谷, 築室其中, 又擬朱子恢復大義, 祀皇明神宗皇帝, 於洞中建祠曰萬東. 嘗有詩曰: ‘綠水喧如怒, 青山默似嘔. 坐看山水意, 嫌我向紅塵.’ 山僧和之曰: ‘綠水元如怒, 青山亦不嘔. 若知山水意, 何事向紅塵?’”

승의 시를 함께 수록하였다.¹⁵⁾ 남인 지식인들 사이에 떠돌던 내용을 『이사재기문록』 편자가 채록하였고, 동국대 소장본 『택리지』의 필사자 역시 채록하여 화양동에 얹힌 일화를 복원하였다. 송시열을 풍자한 산승의 시를 수록한 점으로 미루어 필사자가 노론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남인 지식인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지식정보의 전송과 확장이란 측면에서 『택리지』 이본의 중요성을 다시금 환기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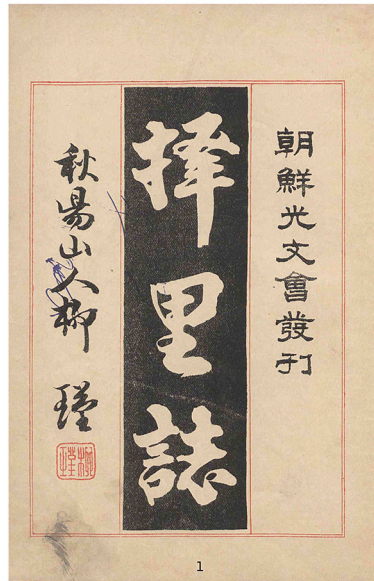
IV.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택리지』 이본 종합DB는 이본이 지닌 다양한 특징에 주목하여 DB로 구축한 사업이다. 표면적인 사업 결과만을 보면, 기존의 『택리지』 연구에서 전혀 활용되지 않았던 텍스트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후속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그동안의 연구에서 이본의 제목과 명칭 등은 언급된 적이 있으나 그 의의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던 여건을 해소했다는 점에 일정한 성과가 있다. 또한 『정보 택리지』의 영역을 뛰어넘어 30여 종의 주목할 만한 조선 후기 지리서를 발굴했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부여할 만하다.

앞서 정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사업의 활용방안과 기대효과를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이는 향후 DB 사업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동시에, 디지털 인문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작은 지침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첫째, 택리지 이본 종합DB 사업은 『택리지』 연구의 또 다른 시작을 예고한다. 본 사업을 통해 정본에 국한하지 않고 각 이본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명확해졌다. 이본별로 정밀한 연구를 진행하고, 별도의 번역서를 출간한다면 더욱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종래의 『택리지』 연구는 최남선이 편찬한 조선광문회본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나, 『정보 택리지』가 출간됨에 따라 『택리지』 연구에 새로운 가능성이 부여되었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 성과는 ‘조선광문회본 『택리지』 연구’로 귀결되며, 결과적으로 현전하는 『택리지』 이본 중 한 종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15) 안대희 교감표점, 「자료의 발굴과 소개: 이사재기문록」, 『문헌과해석』 창간호, 태학사, 1997년 가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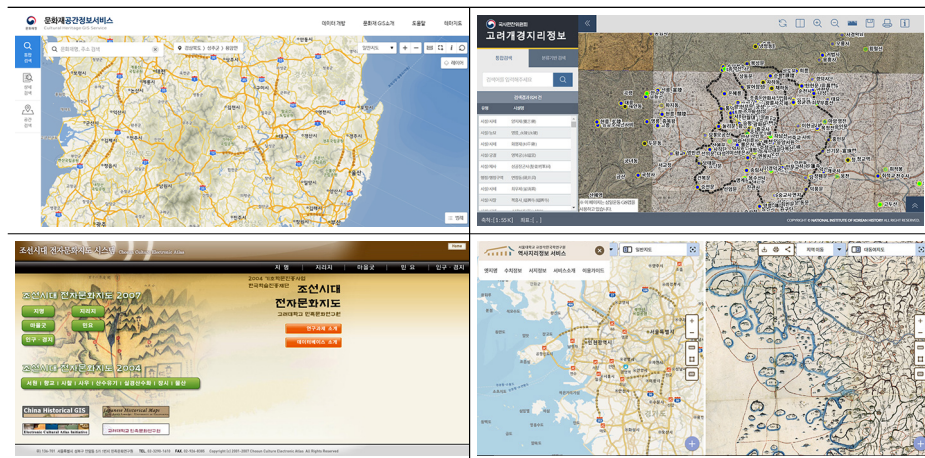
최남선이 편찬한 조선광문회본은 이중환이 저술한 당시의 『택리지』로 오인된 이본의 하나다
〈그림 1〉 조선광본회본 『택리지』

『택리지』는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저자명과 서명을 떠올릴 만한 조선 후기 대표적인 저술이다. 한문학 · 역사학 · 지리학 · 민속학 · 조경학 등 다방면의 학문 분야에서 책에 담긴 풍부한 지식정보에 주목해왔다. 이는 『택리지』가 지닌 역사적 위상과 더불어 내용에 담긴 지식정보에 주목할 만한 가치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리와 산수 등에 대한 인식은 절대적인 개념으로 규정할 수 없다. 개인마다 시각에 차이가 있고, 『택리지』 이본에는 그런 차이가 곳곳에 드러나 있다. 다시 말해 『택리지』 이본의 존재는 이중환의 기술이 절대적이고 확정적인 지식정보의 결정판이 될 수 없음을 방증하므로, 이본 연구는 조선 후기 국토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이해하는 바탕이 될 수 있다.

둘째, 『택리지』 이본에 담긴 각종 정보는 학제 간 연구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인문학의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다. 학제 간 연구를 위해서는 우선 이본에 대한 번역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¹⁶⁾ 이와 더불어 고유명사의 대표명을 통일하는 작업이

16) 예를 들면, 이본 간 字句의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 부분의 경우는 이본마다 번역문의 표현을 동일하

전제된다면, 추후 인명, 지명, 명승 등에 대한 용어사전을 제작하고, 이를 바탕으로 GIS와 연계하여 『택리지』의 지식정보를 디지털로 시각화할 수 있다. 최근 인문학에서는 텍스트로 정립된 방식에서 진일보하여 공간정보를 다루는 ICT기술과 융합하고, 공간의 지점 안에 통합정보를 탑재해 특성을 규명하며, 경관 선호도, 경관에 집적된 정보, 각 유형별 사건의 빈도 등을 모두 디지털 도면에 담아 이를 DB화하는 방식이 각광받고 있다. 디지털 인문학 방법론을 적용하여 본 사업의 결과물을 웹상에 구현한다면 연구의 활용도를 더욱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 고려개경지리정보, 역사지리정보서비스, 조선시대 전자문화지도 시스템
(좌측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그림 2〉 GIS를 활용한 지리정보 사이트 구축 사례

물론, 학계에서는 기존에 이와 유사한 사업을 거듭 진행해왔다. 조선시대 지리지와 읍지 등에서 특정 지역과 유관한 내용을 추출하고 이를 현대지도나 고지도 등에 입력하여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축한 사례이다. 대표적으로 문화재청의 ‘문화재 공간정보 서비스’, 국사편찬위원회의 ‘역사지리정보DB’,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역사지리정보 서비스’, 한국학자료센터의 ‘고지도(『동여도』)’,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의 ‘조선시대 전자문화지도 시스템’ 등을 들 수 있다.¹⁷⁾

게 다듬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상의 사례들은 모두 디지털 인문학 방법론에 기초하여 지도를 기반으로 지리정보를 제공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택리지』 이본 종합DB의 성과를 적용하기에 좋은 참조가 된다. 특히 『택리지』는 관찬 지리지나 읍지와 달리 개인 저술로서 고유한 특징을 지닌 내용이 많다. 더욱이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본마다 독특한 색채를 지니고 있음은 물론이다. 한편 기존 사업의 결과물은 대체로 해당 정보의 출전 등을 제시하지 않아 실제 문헌에서 관련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한계를 노정하였다. 반면 『택리지』 이본 종합 DB 사업은 주요한 이본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각각의 원문 및 출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뿐더러 이본 간 비교·대조가 가능하므로 『택리지』를 다각도로 조명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사업을 통해 이본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지금까지 여러 문헌을 대상으로 정본화 사업이 이루어졌고, 현재에도 정본화 사업이 다수 진행 중이다. 정본화는 저술에 담긴 原意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을 띤다. 이와 같은 정본화 작업이 완료되고 나면 일반적으로 이본은 거의 거론되지 않는 것이 학계의 현실이다. 이에 반해 『택리지』 이본 종합DB 사업은 이본의 가치에 주목한 특수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정본 택리지』와 별개로 『택리지』 이본에는 저마다 고유의 의미가 담겨 있다. 이는 필사의 과정에서 필사자의 의도성이 개입된 결과에 기인한다. 글자 및 내용의 변형은 오류가 아닌 필사자의 취향 또는 선택으로 이에 따른 결과는 정보의 제공을 넘어 자구의 차이 등을 통해 또 다른 문학적 시각을 엿볼 수 있다. 설령 특기할 만한 정보가 거의 보이지 않는 이본이라도 필사의 과정을 거쳐 원 텍스트의 기록이 어떻게 변모해 왔는지 파악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지리지와 같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거나 필기류와 같이 개방된 형태의 문체는

17) 각 사이트의 주소는 다음과 같다.

- 문화재청 ‘문화재 공간정보 서비스’(<http://gis-heritage.go.kr/main.do>)
- 국사편찬위원회 ‘역사지리정보DB’(http://db.history.go.kr/hgis/pro_g1/mainPage.do) 이 사이트에 ‘근대지리정보’, ‘개경지리정보’, ‘삼일운동GIS’, ‘규장각 역사지리정보’가 연계되어 있다.
-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역사지리정보 서비스’(<http://kyuhgis.snu.ac.kr/>)
- 한국학자료센터 ‘고지도’(https://kostma.aks.ac.kr/e-map/mapSearch_AN.aspx?lang=ko&mType=anciNm&sType=anSearch&sWord=)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조선시대 전자문화지도 시스템’(<http://www.atlaskorea.org/historymap.web/IdxRoot.do>)

이본의 존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예컨대 成倪(1439~1504)의 『慵齋叢話』와 같은 경우는 성현 생전에 자신의 저술 목록에 『용재총화』를 포함시킨 정황이 발견되에도 1909년 조선고서간행회에서 간행한 『大東野乘』에 채록된 필사본을 『용재총화』의 정본으로 인식해 연구에 활용하고 있다.¹⁸⁾ 그간의 『택리지』 연구와 마찬가지로 정본이 아닌 ‘이본’을 연구해오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또 하나의 사례이다. 한편, 특정 판본이 선본으로 인식되어 번역이 이루어지면서 오히려 기록에 신빙성을 담보한 판본이 연구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도 확인된다. 『增補文獻備考』의 경우 규장각본의 내용이 더 자세하다는 이유로 이를 대본으로 번역을 진행함에 따라 다른 판본은 연구에 활용되지 않았으나, 규장각본의 경우 오류가 다수 발견되므로 ‘이본’을 통해 정보를 얻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향후 이 같은 저술이 정본화를 통해 원형을 복원하게 되더라도 이본의 존재를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택리지』 이본 종합DB 사업의 결과는 이러한 점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V. 맺음말

이 글은 『택리지』 이본 종합DB 사업의 성과를 개괄하고, 디지털 인문학이라는 측면에서 후속 연구의 방향과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작성되었다. 본 사업의 의미를 돌아보는 것으로 맺음말을 대신한다.

그동안 『택리지』와 관련된 많은 번역서가 출간되고 연구가 진행되며 『택리지』는 사실상 정복된 저술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정본 택리지』의 출간과 『택리지』 이본 종합DB 사업을 통해 그동안의 연구는 일부에 불과함이 드러났다. 사실상 『택리지』 연구는 완성이 아닌 시작이고, 새로운 이본이 발견될 가능성 또한 대단히 높은 현실이다. 그렇다면 『택리지』 이본 종합DB 또한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발견되는 오류를 지속적으로 수정해야 하고 새로운 이본이 발견되면 DB 작업을 거쳐 목록에 추가해야 함은 당연하다. 디지털 인문학의 측면에서 보자면 사업이 지닌 연속성을

18) 이종목 교수의 「용재 성현의 저술」(문헌과해석 발표문, 2021.7.16.)에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간과할 수 없으니, 인문고전 콘텐츠가 디지털화를 거쳐 완성되더라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함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완성된 DB는 연구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 원문의 접근이 용이하여 향후 관련 연구에 활용될 수 있고, 번역작업 등을 진행하는 데 그 수고로움을 덜 수 있다. 만약 디지털과 결합되면 그 연구의 범위는 무한하게 확장된다. 텍스트 시각에서 보면 이본 간 비교 및 대조 등의 작업을 디지털로 구현해 수고를 줄일 수 있다. 학제 간 연구의 영역에서는 지도 등 지리정보와 연계가 가능하고 민속학 정보 및 데이터 추출 등을 통해 여타 학문과의 융복합 연구의 장을 개척할 수 있다. 디지털 인문학의 영역이 단지 문헌을 디지털 문자로 변환해 한문학 연구에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도를 거쳐 새로운 연구로 발전해 나아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 관련 학계와의 연계가 활발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인문학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다.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진은 여러 방면에서 확인하고 싶은 주제들을 거듭 논의하였다. 디지털 매핑을 통해 저자의 서술방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고, 사진 및 도판 등과 연계하여 각 지역의 모습을 바로 알 수 방안을 고민하였다. 모두 디지털을 통해 구현이 가능한 것들이지만 실제 이를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는 현실이다. 디지털 전문가를 통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개발자가 인문학 연구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인지하기는 몹시 어렵다. 결국 이는 디지털 인문학의 전문가를 통해 기획되어야 하고 이에 특화된 전문가의 양성이 필요함에 공감할 수 있었다. 『택리지』 이본 종합DB 사업이 향후 디지털 인문학의 융합 가능성을 탐색하는 하나의 성과가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이중환 지음, 안대회 · 이승용 외 옮김, 『완역 정본 택리지』, 휴머니스트, 2018
- 안대회, 『택리지 평설』, 휴머니스트, 2020
- 김성현, 「『택리지』의 지역서술에 대한 이해: 「팔도총론」 경기편을 중심으로」, 『한국학』 42(4), 한국학중앙연구원, 2019
- 김세호, 「關東八景의 選定에 나타난 『擇里志』의 명승관」, 『고전번역연구』 11, 한국고전번역학회, 2020
- 김약슬, 「星湖手寫本 擇里誌에 대하여」, 『국회도서관보』 5(4), 국회도서관, 1968
- 박광용, 「李重煥의 정치적 위치와 『擇里志』 저술」, 『진단학보』 69, 진단학회, 1990
- 박영한, 「淸潭 李重煥의 地理思想에 關한 研究」, 『지리학논총』 4,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1977
- 배우성, 「擇里志에 대한 역사학적 讀法: 필사본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한국문화』 33,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2004
- 서수인, 「택리지 연구 서설」, 『대한지리학회지』 1, 대한지리학회, 1963
- 신병주, 「『택리지』를 통해 본 이중환의 역사인식·인물과 사건 기록을 중심으로」, 『동국사학』 58, 동국사학회, 2015
- 안대회, 「자료의 발굴과 소개: 이사재기문록」, 『문헌과해석』 창간호, 태학사, 1997
- _____, 「『택리지』와 조선 후기 지방 이해의 혁신: 부랑하는 존재의 이주와 정주」, 『한국한문학연구』 53, 한국한문학회, 2014
- _____, 「『擇里志』의 口傳지식 반영과 지역전설 서술의 시각」, 『대동문화연구』 93,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6
- _____, 「한국 고전학의 방향-정전화와 정본화」, 『대동문화연구』 101, 대동문화연구원, 2018a
- _____, 「이중환의 『택리지』 개정과 이본의 형성」, 『민족문화연구』 79,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8b
- _____, 「『택리지』의 篇目과 이본의 구조 및 계통」, 『동방학지』 183, 연세대 국학연구원, 2018c
- _____, 「소사전투에서 활약한 원숭이 기병대의 실체」, 『역사비평』 124, 역사비평사, 2018d
- _____, 「扈園 黃裳의 『擇里志』 개정과 증보」, 『한국문화』 84,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8e
- _____, 「청담 이중환 생애의 재조명」, 『한국한문학연구』 73, 한국한문학회, 2019a
- _____, 「조선 후기의 좋은 집터, 이상적 거주공간의 이론과 실제-『임원경제지』 「상택지」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83,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9b

- _____, 「조선 후기 명승 자료에 나타난 경관평가」, 『동방학지』 187, 연세대 국학연구원, 2019c
- 안소라, 「『擇里志』 異本 『卜居說』 연구」, 『한국실학연구』 40, 한국실학학회, 2020
- 양승목, 「조선후기 십승지론의 전개와 ‘살 곳 찾기’의 향방」, 『한국한문학연구』 63, 한국한문학회, 2016
- 예정희, 「淸潭 李重煥의 擇里誌 地理內容에 관한 研究」, 『박물관보』 20, 청주대 박물관, 2007
- 오 성, 「『擇里志』의 「八道總論」과 「生利」條에 대한 考察」, 『진단학보』 69, 진단학회, 1990
- 이도훈 · 김세호 · 임영길, 「『擇里志』 異本考」, 『대동문화연구』 93,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6
- 이원호, 「擇里志에 나타난 이중환의 명승관」, 『대동문화연구』 93,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6
- 이종묵, 「용재 성현의 저술」, 문헌과해석 발표문, 2021.7.16.
- 이 찬, 「택리지에 대한 지리학적 고찰」, 『애산학보』 3, 애산학회, 1984
- 임영길, 「조선 후기 『擇里志』의 읽기 방식-서발문 및 관련 저작을 중심으로」, 『語文研究』 44(4),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6
- 임영길, 「『擇里志』의 서북지역 기록과 그 특징」, 『한국실학연구』 39, 한국실학학회, 2020a
- _____, 「『擇里志』 異本の 계통에 대한 補論」, 『고전번역연구』 11, 한국고전번역학회, 2020b
- 전종한, 「『택리지』에 나타난 ‘국토지리’의 서술 방식과 지리적 논리」, 『대동문화연구』 93,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6
- 최인실, 「『택리지』 초기 필사본 추정을 위한 서지적 고찰」, 『서지학보』 40, 한국서지학회, 2012
- _____, 「『와유록』의 「사대부가거처」, 『택리지』의 원본인가」, 『한국문화』 86,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9
- 전미경 · 정기호, 「택리지의 경관론적 연구방향 모색-연구사적 고찰과 구성체계의 분석」, 『한국조경학회지』 23(1), 한국조경학회, 1995
- 전영권, 「택리지의 현대지형학적 해석과 실용화 방안」, 『한국지역지리학회지』 8(2), 한국지역지리학회, 2002
- 정기호 · 전미경, 「국토의 정체성 수립을 위한 취락 및 자연경관의 조사분석 연구: 『택리지』의 가거지마을과 인근지역의 경관조사분석을 통하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15(1), 한국조경학회, 1997

Achievements and utilization of the Database of *Taengniji*(擇里志)'s different versions

Ahn, Dae-hoi · Yim, Young-gil · Kim, Se-ho

Taengniji(擇里志) is Korea's representative geography book written by I Jung-hwan (1690-1756) in the late Joseon Dynasty. Using Paldoron(八道論) and Bokgeoron(卜居論) as a large framework, the land worth living in the eight provinces of Joseon and places with outstanding landscape were recorded. Immediately after *Taengniji* came out into the world, it quickly spread with the attention of readers. The quantity of the different versions, which exceeds 200 species, clearly shows the high interest and popularity of *Taengniji*. Among the numerous different versions, there are many cases in which the scribe attempted arbitrary modifications by period, region, and party. Among them, a project was carried out to construct into a Database by selecting 30 types, including different versions, which contains meaningful records that cannot converge to the existing original work, and different versions, which was reorganized into an inventive cataloging and composition.

As a result of conducting 'The integrated database of *Taengniji*'s different versions' project, it was confirmed that, important information which was not included in the original book was found in several different versions, and some specific trends in content and format were found among the vast different versions. In this paper, characteristic examples are presented in four categories. For example, in Paldoron's Jeonra-do section, a person representing the region is added to each different versions. In some cases, it is found that the origins of certain places are more abundantly supplemented, such as Yeongwangjeong in Pyongyang(Pyeongang-do section) and Miwonchon in Yanggeun(Gyeonggi-do section). In addition, there are cases that the view of a specific area is evaluated contrary to that of I Jung-hwan such as the Hwanghae-do section in the Chiwon version of *Taengniji*. On the other hand, in the different versions of the *Dongguk-sansurok*(東國山水錄) lineage, it can be seen that it has been transformed into a completely different form of *Taengniji* by boldly reorganizing the cataloging and

composition.

The results of ‘The integrated database of *Taengniji*’s different versions’ project are evaluated to provide various implications for the classical text DB project in the future. First, through translation and research on the different versions of *Taengniji*, it is possible to derive the historical, ideological, and cultural meanings of each different versions. Second, it is possible to derive new knowledge information through interdisciplinary research using the different versions, away from the research that has been devoted to the existing Gwangmunhoe version of *Taengniji*. Third, it is expected that the value and meaning of the different versions, which was neglected in general during the originalization work, will be recalled, and revitalize the research on the different versions in future. In addition, it is hoped that the performance of this project will serve as a small foundation for the development of classical literature research applying digital humanities methodology.

Key Words : I Jung-hwan, *Taengniji*, study on different version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digital humanities